**정한길 선교사 개인 소개 및 사역 소개 리포트**

**개인 소개:**

정한길 선교사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 예수전도단(YWAM) 대학부 간사로 건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섬기다가, 1993년 OM/GMS 선교사로 발칸 반도에 파송되어 헝가리에서는 OM 선교 캠페인 코디네이터로 섬겼고, 알바니아에서는 교회 개척 사역 중 코소보 내전으로 입국한 코소보 난민들을 난민 캠프에서 섬기다가 1999년, 유엔과 함께 코소보로 들어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며 BFA(Balkan Frontier Action) 대표로 유엔 산하에서 코소보 난민과 지역 개발사역으로 섬겼다.

그 후, SOUL(Serving Overseas Unreached Lands) 대표로 섬기며, KWMA 실행위원과 랄프 윈터 박사의 USCWM의 IFMN 자매 단체인 KFMN (Korea Frontier Missions Network) 초대 한국 코디네이터, IJFM의 자매 저널 KJFM (Korean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초대 편집위원장으로 섬겼다.

이후 2009년, 중국 선교 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사역지를 옮겨 인터서브(Interserve)의 CMM (China Mission Movement) 초대 코디네이터와 인터서브 중국의 VNO (Virtual National Office) 초대 대표를 역임했다.

2020년부터 인터서브 미주 아시안 디아스포라 선교 동원 및 미션 코치로 섬기고 있다.

**사역 소개:**

정한길 선교사는 2020년부터 미국 텍사스 달라스로 사역지를 옮기고 미주 아시안 디아스포라 및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Global South 선교 동원 및 미션 코치로 사역중이다.

미주의 아시안 디아스포라 공동체들 안의 선교 자원을 동원하여 타문화권으로 파송하며 지역교회들의 미션코치로서 지역 교회들의 선교의 동력화와 선교 컨설팅, 건강한 선교적 교회 운동을 돕고 있으며 구체적 도움을 위해 선교 프로그램인 자두나무 프로젝트, LAMs, Missional Church, 인카운터 이슬람 등을 통해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을 교육, 훈련하고 있다.

또한 Global South에 속한 교회들의 선교 동원과 Mission Planting을 도우며 선교 운동을 지원한다. 특히 브라질 중심의 남미 교회들 안의 선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장로교 신학교, Amide 등의 현지 선교 단체들과 동역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1. 미주 아시안 디아스포라 공동체들(한인교회 포함)안에 선교 프로그램(자두나무 프로젝트, LAMs, Missional Church, 인카운터 이슬람 등)을 실시함으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격려한다.
2. 무슬림에 대한 이해와 사역 위해 이슬람 세미나를 아시안 공동체들 안에 개최한다.
3. DFW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 사역자들과 난민 사역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모임을 갖고 동역을 모색한다.
4. 장기적으로 Global South 를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 가칭 The Center for Global South 를 설립한다.

: 기관 안에 아래와 같은 부서들을 구성한다.

Mission programs,

Mission coach,

China mission movement,

Brazil mission movement,

Muslim ministry,

Refugee ministry,

Research,

Texas Forum





























